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광역경제권 간의 산업구조 분석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을 중심으로-

김용민*
kymin@cau.ac.kr
윤일현**
ihyoon58@gdsu.dongseo.ac.kr

<目次>

1. 들어가며
2.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산업구조
3. 선행연구와 분석 방법
3.1 선행연구
3.2 분석 방법
4. 광역경제권의 산업구조 분석
5.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산업 간 상호작용
6. 마치며

主題語: 광역경제권(Great-Sphere Economic Area), 산업구조(Industrial Structure), 경제격차(Economic disparity), 변이할당 모형(shift-share analysis), 경제구조(Economic structure)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경제권 간 산업구조 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 협력의 전개방향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동남경제권과 일본의 규슈경제권이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간 상호작용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 시론적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려는 것이다.

지속적인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도시자생력 향상을 위한 도시경제 활성화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1] 글로벌화의 진전은 광역경제권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광역도시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자율적 발전이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 중앙대학교 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저자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교신저자

1)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으로 추진되었지만, 성장을 둘러싼 수도권·지방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지역경제 성장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권창기(2011)「광역권 발전을 위한 대안적 권역설정과 연계협력 방안: 동남권을 사례로」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20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인식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도시의 경쟁력은 단기간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도시 특유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산업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광역도시의 경쟁력은 특유의 경제구조에 기반을 두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의 배양이 경쟁력 강화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재분배를 통한 생활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초국경 지역경제협력은 공간경제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동질의 문화권을 기반으로 교류에서 출발하여 조정과 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질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협력은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이 넓어 실현까지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한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동해권, 환황해권 등의 지역협력체 구상은 동질 문화권이면서도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정체되고 있어 초국경 지역협력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협력에 대한 논의는 동남권 중심인 부산과 규슈경제권 중심인 후쿠오카와의 사이에 협력사무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지역협력에 대한 분석은 다른 경제권 구상의 경제학적 지표와 협력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지역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는 2010년 광역경제권 형성을 목적으로 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협정의 체결은 2008년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광역경제권 형성의 구상을 확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일정규모의 경제권 기능을 갖고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3)] 이는 규모의 경제달성을 통한 양적·질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원화된 협력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2010년 전후를 기준으로 양 경제권의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협력의 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경제상황을 살펴본 후, 산업구조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산업구조에 대한 기존의 접근

2) Robert J. Pogerson.(1999)「Quality of Life and City Competitiveness」『Urban Studies』Vol.36, No.5-6, pp.969-985

3) 加峯隆義(2010)「動き出した九州と韓国東南圏地域の超広域経済圏」『九州国際大学経営経済論集』第6巻第3号, 九州国際大学, pp.78-79

방법들에 대하여 간략히 비교·고찰한 후 본고의 분석방법을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산업구조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산업 간 상호작용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 간의 지역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광역경제권의 현황과 산업구조

광역권이란 몇 개의 행정구역을 묶는 대도시권의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자립적인 경제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이는 도시생활권의 범위가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관성이 정립되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

동남경제권은 한국의 동남부 3개 시·도(부산·울산·경남)로 구성되어 도로망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형 광역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5)] 동남경제권의 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전국 국토면적 대비 1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전국대비 1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액의 비중은 27.33%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인 부산은 동남경제권 면적의 6.21%에 불과하지만, 인구비율이 44.19%, 지역총생산의 28.70%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경제권 대비 부산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각각 14.57%와 14.89%에 불과하지만, 3차 산업이 46.27%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도 도매·소매업,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물류 및 유통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규슈경제권은 4개의 일본열도 중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7개의 현과 3개의 정령지정도시로 구성되어 있다.[6)] 규슈경제권의 경제규모는 전국 국토면적 대비 11.16%, 인구는

4) 황연우·강기철(2010)「동남광역경제권의 공간기능 분석에 관한 연구」『도시정책연구』제1권1호, 도시정책학회, pp.38-39

5) 김영표(2013)「동남권 공동번영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경남발전』제129집, 경남발전연구원, p.90;권창기·정현욱(2007)「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 특성비교」『국토연구』제52호, 국토연구원, p.40

6) 정령지정도시는 지방자치법 제25조 19에 의해 정해진 일본의 도시제도로,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정도시 또는 지정 시로 표기하며, 규슈경제권에는 후쿠오카 시, 기타규슈 시, 구마모토 시가 있다. 규슈경제권의 정령지정 도시인 후쿠오카 시와 기타규슈 시는 행정구역상 후쿠오카 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쿠오카 현과 같은 수준의 행정력과 재정력이 있다. 임정덕·윤성민(2010)「동남권(부산권)-규슈(후쿠오카) 초광역권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방향」『지역사회연구』한국지역사회학회, p.93

10.27%, 지역총생산은 8.89%를 차지하고 있다. 규슈경제권의 중심지역인 후쿠오카현(福岡県)은 규슈경제권 면적의 11.79%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가 38.52%, 지역내 총생산이 40.92%, 무역액이 53.92%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오카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규슈경제권 전체의 15.2%에 불과하지만, 2차와 3차 산업이 각각 42.02%, 43.41%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7)]

양 광역경제권의 경제규모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역경제정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동남경제권의 지역경제정책은 2008년에 구상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기본구상'과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국가균형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경제정책이 주민의 실제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경제성장보다 지역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지방도시 특색에 맞는 정책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도시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도시 광역화가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 지역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워 도시를 변혁하고, 경쟁력을 갖는 자립형 경제권의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규슈경제권은 2014년부터 시행될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업실증특례제도'에 의한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과 수익향상을 위한 사업재편 및 기업(起業) 촉진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8)]

양국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경제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역정책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권 형성을 위한 성장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산업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내부적 변화의 생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정

---

7) 2010년 후쿠오카현의 산업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로 측정하면 총 231,566사업장 중 1차 산업은 743개의 사업장으로 0.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은 34,986개의 사업장으로 15.18%, 3차 산업은 194,701개의 사업장으로 전체의 84.49%를 차지하고 있다. 2차 산업에서는 음식제조업(1,803개), 금속제조 제조업(1,551개), 가구·장비제조업(1,333개), 인쇄(1,065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에서는 도매·소매업(66,240개), 숙박·음식 서비스업(30,078개), 생활관련 서비스업(20,069개), 부동산·임대업(15,250개)의 순으로 나타나 후쿠오카의 산업구조는 음식제조업과 도매·소매업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福岡県(2012)『福岡県統計年鑑』, p.96

8) 九州産業経済局(http://www.kyushu.meti.go.jp/seisaku/kyosoryoku/index.html, 검색일 2014.01.20)

부 및 지역산업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지역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경제 정책과 더불어 지방정부 주도의 자립형 경제권 추진전략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 간의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는 각 광역경제권의 산업이 전국 동일산업에 비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화계수를 이용하여 전개하고자 한다.[9] 특화계수를 이용한 동남경제권의 산업구조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동남경제권의 산업 특화계수

	부산				울산				경남			
연도 / 산업	2000	2004	2008	2012	2000	2004	2008	2012	2000	2004	2008	2012
농림어업	0.40	0.33	0.33	0.33	0.14	0.13	0.14	0.12	1.51	1.65	1.66	1.60
제조업	0.69	0.63	0.67	0.61	2.62	2.51	2.25	2.08	1.60	1.53	1.48	1.40
전기·가스·수도업	1.09	1.23	1.23	1.11	1.23	1.01	0.94	1.17	1.31	1.45	1.24	1.25
건설업	1.01	1.14	1.01	1.13	0.49	0.50	0.87	0.79	0.85	1.06	1.06	0.97
도매·소매업	1.37	1.30	1.35	1.44	0.35	0.39	0.43	0.37	0.57	0.57	0.59	0.63
운수업	2.27	2.55	2.41	2.49	1.08	0.88	0.90	1.11	0.83	0.68	0.79	0.77
숙박·음식점업	1.15	1.24	1.28	1.35	0.42	0.48	0.50	0.48	0.80	0.76	0.81	0.87
정보·통신업	0.59	0.68	0.63	0.60	0.21	0.25	0.24	0.24	0.32	0.38	0.37	0.38
금융·보험업	1.06	1.06	1.04	1.03	0.33	0.32	0.35	0.34	0.51	0.55	0.54	0.52
부동산업·임대업	1.13	1.13	1.10	1.16	0.40	0.41	0.43	0.43	0.66	0.65	0.66	0.68
사업서비스업	0.81	0.81	0.88	0.88	0.29	0.30	0.28	0.30	0.42	0.37	0.40	0.58
교육서비스업	1.19	1.21	1.23	1.28	0.46	0.54	0.55	0.55	0.91	0.90	0.87	0.86
보건·복지업	1.47	1.41	1.47	1.58	0.41	0.51	0.53	0.51	0.81	0.86	0.89	0.90
예술·스포츠·여가업	0.77	0.85	0.94	0.98	0.39	0.34	0.38	0.35	0.58	0.65	0.68	0.68
기타서비스업	1.11	1.15	1.19	1.16	0.50	0.59	0.61	0.62	0.86	0.88	0.89	0.9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계정에 의거 작성(2005년 기준가격)

지역별 특화계수에서 부산은 농림어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이 낮게 나타났고, 그 밖에 산업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물류업이 높게 나타나 지역

9) 특화계수는 산업의 지역 간 편중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특화계수에서는 지역의 제조업 비중을 전국 제조업비중으로 제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기반산업이 유통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나 산업의 집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는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생산의 집적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동남경제권의 산업구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부산의 운수업, 울산의 제조업, 경남의 농림어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반산업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규슈경제권의 산업 특화계수

		농림 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운송·통신업	서비스업
후쿠오카	2001년	0.76	1.29	0.77	0.91	0.91	1.17	0.80	1.00	1.20	1.12
	2004년	0.74	1.34	0.75	0.90	0.93	1.18	0.76	1.00	1.24	1.15
	2007년	0.75	1.35	0.75	1.01	0.92	1.12	0.80	1.00	1.19	1.19
	2010년	0.73	0.86	0.85	0.97	0.89	1.12	0.75	0.96	1.15	1.14
사가	2001년	3.07	0.90	1.03	1.20	2.05	0.69	1.10	0.80	0.92	0.99
	2004년	2.71	1.11	1.01	1.28	2.38	0.70	1.07	0.82	0.97	0.96
	2007년	2.65	1.20	1.17	1.31	2.30	0.64	1.08	0.81	0.77	0.93
	2010년	2.55	1.08	1.22	1.30	2.04	0.65	1.12	0.81	0.78	0.91
나가사키	2001년	2.45	2.71	0.38	1.35	1.34	0.97	0.84	1.01	1.21	1.30
	2004년	2.60	1.44	0.51	1.30	1.34	0.97	0.82	1.04	1.21	1.24
	2007년	2.73	1.41	0.76	1.05	1.39	0.87	0.88	1.02	0.91	1.27
	2010년	2.59	1.22	0.91	1.06	1.22	0.89	0.75	0.98	0.86	1.21
구마모토	2001년	3.26	1.43	0.80	1.32	0.84	0.88	0.71	0.99	1.08	1.12
	2004년	2.89	1.95	0.88	1.03	1.03	0.88	0.62	1.03	1.13	1.13
	2007년	3.06	1.60	0.90	1.12	0.99	0.88	0.76	1.01	0.87	1.18
	2010년	2.78	1.12	0.95	1.13	0.97	0.91	0.74	1.01	0.84	1.14
오이타	2001년	2.24	3.04	1.13	1.30	1.30	0.75	0.71	0.88	0.96	1.04
	2004년	1.96	2.97	1.35	1.18	1.25	0.70	0.65	0.84	0.91	0.97
	2007년	2.12	3.44	1.28	1.14	1.42	0.68	0.73	0.86	0.73	1.07
	2010년	2.02	3.23	1.40	1.07	1.36	0.70	0.69	0.84	0.69	1.01
미야자키	2001년	4.48	1.17	0.64	1.44	0.98	0.91	0.66	0.87	1.08	1.20
	2004년	4.52	0.96	0.69	1.43	1.04	0.90	0.63	0.96	1.11	1.16
	2007년	4.82	0.88	0.74	1.36	0.97	0.90	0.71	0.97	0.86	1.25
	2010년	4.45	0.69	0.77	1.52	0.91	0.95	0.73	0.91	0.87	1.20
가고시마	2001년	3.23	1.80	0.60	1.35	1.32	0.92	0.80	0.97	1.36	1.09
	2004년	3.37	2.46	0.65	1.22	1.27	0.91	0.83	0.95	1.46	1.10
	2007년	3.76	3.83	0.72	1.29	1.31	0.86	0.88	0.95	1.06	1.17
	2010년	3.39	7.16	0.77	1.13	1.20	0.93	0.83	0.92	1.14	1.12

자료) 內閣府, 『県民経済計算』에 의거 작성(2005년 기준가격)

규슈경제권의 산업구조를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후쿠오카(福岡)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에서 낮게 나타났고, 사가(佐賀)에서는 도매·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운송·통신업, 서비스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나가사키(長崎)와 구미모토(熊本)는 제조업과 도매·소매업, 금융·보험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児島)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도매·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규슈경제권은 제조업과 도매·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에서 낮게 나타났고, 에너지 관련의 전기·가스·수도업과 지리적 요인에 의한 운송·통신업, 서비스업을 기반산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경제권의 산업구조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광역경제권의 산업 간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하여 지역경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시론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광역경제권 간의 산업 상호작용은 지역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외부효과를 창출하여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10]

3. 선행연구와 분석 방법

3.1 선행연구

광역경제권의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는 도시 경쟁력과 지리적 조건 및 교류 현황을 토대로 지역 간의 암묵적 경제권 형성으로 파악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는 우양호·홍미영(2012), 이재득(2010), 김경희·이창현(2009), 강승호(2008), 김홍률(2007) 등 다수의 업적이 축적되어 있다.

우양호·홍미영(2012)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동북아 해양도시의 초국경 교류와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초국경 협력의 성공사례로 '외레순' 지역을 평가하고,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도시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네트워크의 견고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1]

이재득(2010)은 무역특화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등을 이용하여 무역구조를 분석했다. 규슈

10) Storper, M. and Scott, A. (2003)「Region, Globalization, Development」『*Regional Studies*』No.37, pp.549-578
11) 우양호·홍미영(2012)「동북아시아 해양도시의 초국경 교류와 협력방향 구상: 스웨덴 해협도시의 성공경험을 토대로」『21세기 정치학회보』제22집3호, 21세기 정치학회, pp.375-395

지역은 거래상품에 따라 비교우위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기계부분에서 일본 전체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석유화학산업 분야에서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도출했다.[12)]

김경희·이창현(2009)은 부산권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초광역 경제권 형성에 관한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배경에 대해 검토하고 부산과 후쿠오카의 수출입 현황을 토대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관광산업 벨트, IT산업과 연계된 정보서비스, 환경산업, 첨단 및 부품소재 산업의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13)]

김홍률(2009)은 지역경제 협력을 경제적 교류와 협력에 의한 도시 간 네트워크의 기능 강화로 설정하여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지리적 특징인 관광 및 물류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4)]

강승호(2008)는 국제화 여건이 중시된 도시경쟁력 지표체계를 구성하여 동북아 19개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측정했다. 동북아 지역 내의 선진 국제도시들과 중국의 주요도시들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선진도시는 물론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 간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5)]

이상의 선행연구는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경제 협력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담론 혹은 기능주의에 몰입한 나머지 경제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경시하고, 지리적 변수만을 부각하는 오류를 범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가 담론 혹은 교류 현황을 중심으로 현상과 발전 방안의 틀 안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다. 방법론에서는 거시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천착되어 지역협력 변화의 요인들에 대한 거시적 연구의 진전이 있었지만, 경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미시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해왔던 미시적인 요소들에 주목하여 광역경제권의 지역협력을 유인하고 도시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산업 간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이재득(2010)「부산과 규슈지역의 한·일 초광역권 형성에 따른 교역구조 분석」『관세학회지』제11권 4호, 한국관세학회, pp.333-358

13) 김경희·이창현(2009)「초광역권으로 본 한국-일본 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통상정보연구』제11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407-440

14) 김홍률(2009)「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협력 방안」『일본근대학연구』제2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49-273

15) 강승호(2008)「동북아 주요도시의 경쟁력에 관한 비교」『동북아경제연구』제4집, 한국동북아 경제학회, pp.1-23

3.2 분석 방법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산업경쟁력에 관한 이론으로는 마샬(A. Marshall)의 산업집적론,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 크루그먼(P. Krugman)의 공간경제학 등이 있다. 산업집적론은 제조업을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상정하면서 범위를 확대해 상업 및 서비스 제공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형성과정보다는 지속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특정지역 생산요소의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이들 요소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과 융합되어 산업의 국지화 현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공업입지론은 비용최소화 원칙에 의해 공업의 입지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입지에 의해 변동하는 운송비, 노동비, 집적의 이익에 의한 절약비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산업집적론은 지속성을 중시하는 반면 공업입지론은 형성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한편 공간경제학에서는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를 중시하는 산업집적론과 달리 지리적 집중에 의한 특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 집중에 의한 특화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규모의 경제에 의해 우위성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수확체증, 운송비, 수요의 상호작용 등에서 지리적 집중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6]

이러한 산업경쟁력에 관한 이론은 세계화,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의 주체로 도시가 부각되면서 세계화와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가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시키면서 경제성장의 경로를 다양화 시키고 있다.[17] 이에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동남·규슈 경제권 간 지역협력에 의한 상생발전의 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산업간 경쟁력에 관한 분석은 변이할당 모형(shift-share analysis)을 이용하여 전개한다. 이 모형은 지역경제 성장을 산업구조 요인, 지역특수 요인으로 분해하여 어느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지역경제 성장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2개의 분석 시점을 설정하여 동적인 변화를 분석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18] 즉, 변이할당 모형을 통하여 지역 내 기반산업의 성장을 전국의 산업성장과 비교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도출하는 것이

16) 長瀬勇人(2009)『福岡市の都市競争力：産業集積の視点』(財)福岡アジア都市研究所, pp.12-14

17) 심송재·김동윤(2010)「요인분석에 의한 도시경쟁력 연구: 안양시의 관점에서」『수도권 연구』제7권, 안양대학교 수도권 발전연구소, p.38

18) 산업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 세부적 분석이 어렵고, 산업성장의 구조적 특성, 성장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는 변이할당 모형이 일정할당과 일정변이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의한 지역경제 성장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전개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홍배·김현주(2001)「예측수단으로서의 변이할당모형」『국토계획』제36권 1호, p.223

다. 산업구조 요인은 지역 산업구조의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한 반면, 지역특수 요인은 산업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다. 아래의 변이할당 모형에서 좌측이 산업구조 요인이며, 우측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특수 요인이다.

$$r-n=R_i/R(n_i-n)+R_i/R(r_i-n_i)$$

R: 전국 0기의 부가가치 총액
R_i: 지역 0기의 산업 i의 부가가치액
r: 지역경제의 성장률
r_i: 지역 산업i의 부가가치 변화율
n: 전국의 성장률
n_i: 전국 산업i의 부가가치액 변화율

산업구조 효과는 성장산업이 지역에 이미 축적되어 그 비중이 전국을 상회할수록 지역경제에 높은 성장률을 가져온다. 여기에 비해 지역특수 요인은 해당기간에 산업i의 집적이 촉진되어 산업i의 생산액이 증가, 또는 지역적인 이노베이션이 발생하여 생산성이 상승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4. 광역경제권의 산업구조 분석

분석은 변이할당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경제권 간의 산업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3>은 동남경제권의 산업성장률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산업구조 요인에 대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산업구조 요인이 마이너스 0.93%에서 마이너스 0.65%로 약간 개선되었지만, 이후 마이너스 0.95%로 나타나 성장산업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플러스 3.09%에서 플러스 4.86%로 상승했고, 2008년에서 2012년에는 플러스 5.7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울산지역에서 성장률이 높은 산업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는 것으로 산업의 집적효과가 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마이너스 0.12%에서 플러스 1.10%, 플러스 1.72%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에서 성장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 보면 울산과 경남에서 산업구조 요인이 높게 나타났지만, 부산에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도시의 기능과 관련된 공업화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편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특수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성과 전국의 산업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값이 정(正)이라면 전국 동일업종 성장률 이상으로 지역 동일업종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은 마이너스 1.62%에서 마이너스 4.55%, 마이너스 5.72%를 기록하여 지역 내 생산성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변화가 크고, 효과도 약하게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마이너스 2.80%에서 마이너스 9.19%로 크게 상승했지만, 이후 마이너스 2.18%로 개선되고 있어 지역특수요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의 경우 플러스 1.52%에서 마이너스 1.75%로 전환되었고, 이후 마이너스 3.48%로 크게 상승해 지역 내 생산성 상승의 요인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및 국제경제의 경기변화가 지역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동남경제권의 산업성장률 요인(%)

	2000년-2004년			2004년-2008년			2008년-2012년		
	산업구조	지역특수	격차	산업구조	지역특수	격차	산업구조	지역특수	격차
부산	-0.93	-1.62	-2.55	-0.65	-4.55	-5.20	-0.95	-5.72	-6.67
울산	3.09	-2.80	0.30	4.86	-9.19	-4.34	5.74	-2.18	3.56
경남	-0.12	1.52	1.40	1.10	-1.75	-0.65	1.72	-3.48	-1.7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계정에 의거 작성(2005년 기준가격)

<표 4> 규슈경제권의 산업성장률 요인(%)

	2001년-2004년			2004년-2007년			2007년-2010년		
	산업구조	지역특수	격차	산업구조	지역특수	격차	산업구조	지역특수	격차
후쿠오카	-0.34	0.59	0.25	-0.16	-1.11	-1.27	0.37	4.47	4.84
사가	-0.20	-0.54	-0.74	0.18	2.62	2.80	-0.31	1.16	0.86
나가사키	-1.65	0.87	-0.78	-0.95	-0.85	-1.81	0.42	5.68	6.10
구마모토	-0.69	-2.12	-2.81	0.20	0.08	0.28	0.17	2.05	2.22
오이타	0.11	3.11	3.22	0.74	-3.74	-3.00	-0.31	3.73	3.42
미야자키	-1.28	3.15	1.86	-0.80	-1.50	-2.31	0.14	4.28	4.42
가고시마	-1.24	-0.79	-2.03	0.85	-2.13	-1.28	0.07	3.50	3.57

자료) 内閣府, 『県民経済計算』에 의거 작성(2005년 기준가격)

규슈경제권의 산업성장률 요인에 대해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의 산업구조 요인은 오이타가 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오이타 이외에도 사가(플러스 0.18%), 구마모토(플러스 0.20%), 가고시마(플러스 0.85%)에서도 성장산업이 출현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사가(마이너스 0.31%)와 오이타(마이너스 0.31%) 이외의 지역에서 플러스 영향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성장산업이 등장하여 산업의 집적화가 형성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수 요인에서는 2001년에서 2004년까지는 사가(마이너스 0.54%), 구마모토(마이너스 2.12%), 가고시마(마이너스 0.79%)로 나타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플러스로 나타났다. 특히 오이타와 미야자키에서는 각각 플러스 3.11%, 3.15%로 나타나 전국 동일산업 성장률 이상으로 지역 동일산업이 성장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후쿠오카, 나가사키, 미야자키가 플러스 영향에서 마이너스 영향으로 전환되었고, 사가, 구마모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규슈경제권 모든 지역이 플러스 효과로 나타나 지역특수 요인이 작용하여 지역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가사키에서는 플러스 5.68%로 나타나 변화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산업성장률 요인에서는 동남경제권이 산업구조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규슈경제권에서는 지역특수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은 지리적 요건에 의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유통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양 경제권은 거점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산업 간 연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산업 간 상호작용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지역경제 협력은 경쟁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형성의 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국제경쟁력의 경쟁단위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인구 및 면적, 경제력, 도시기능의 광역경제권이 생성되고 있다.[19]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경쟁 상대이지만, 협력관계

19) 金秉基(2012)「日韓広域経済圏形成による地域の産業振興と環境保全」『Discussion Paper』No. J-33, 滋賀

구축에 따라 지역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높이게 된다. 이는 지역 간 연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 상승효과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광역경제권 형성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광역경제권의 산업 간 상호작용을 유인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산업의 상호작용을 유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특수 요인을 이용하여 연계 가능한 산업을 유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별 기여도를 분해하여 4개 유형의 산업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별 기여도 분해는 동남경제권에서 2000년에서 2012년, 규슈경제권은 2001년에서 2010년을 대상으로 한다. <표 5>는 동남경제권의 산업별 성장요인의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동남경제권의 산업별 특징

산업 분류	산업구조 요인	지역특수 요인
농림어업	-1.2140	-0.0483
광업	-0.0999	0.0044
제조업	16.4928	-15.301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4479	-0.3148
건설업	-2.6306	0.7956
도매 및 소매업	-1.6505	-0.1232
운수업	-0.0282	-0.3494
숙박 및 음식점업	-0.6931	0.1381
정보 및 통신업	0.7826	0.0886
금융 및 보험업	1.2885	-0.59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150	-0.1798
사업서비스업	-0.0968	0.46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627	0.0361
교육서비스업	-0.6007	-0.213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649	0.2334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4080	0.1891
기타서비스업	-0.4365	0.0955

주) 단위는 %이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계정에 의거 작성(2005년 기준가격)

大学, p.3

제1유형은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특수 요인이 플러스로 성장산업의 집적화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산업과 지역 내 특수요인에 의해 산업활동이 활발한 산업이다. 이 유형에 있는 산업은 정보 및 통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다.

제2유형은 산업구조 요인은 마이너스이지만, 지역특수 요인이 플러스인 산업이다. 이는 전국 동일산업에 비해 지역 동일산업의 성장률이 높다는 것으로 산업구조 요인으로 해석이 곤란한 지역특수 요인이 작용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산업은 광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이다.

제3유형은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특수 요인이 마이너스로 산업이 구조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지역특수 요인에 의해서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산업은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도매·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이다.

제4유형은 산업구조 요인이 플러스이지만, 지역특수 요인이 마이너스로 성장산업의 집적화가 형성되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이다.

한편, 규슈경제권의 산업별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 <표 6>이다. 동남경제권의 유형과 같이 제1유형에 속하는 산업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나타났고, 제2유형에 속하는 산업은 광업, 도매·소매업,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에 속하는 산업은 농림수산업과 건설업으로 나타났고, 제4유형에 속하는 산업은 운송 및 통신업으로 나타났다.

<표 6> 규슈경제권 산업별 특징

산업 분류	산업구조 요인	지역특수 요인
농림수산업	-0.3023	-0.0497
광업	-0.0750	0.0081
제조업	3.0706	6.8032
전기가스, 수도업	0.2454	0.0390
건설업	-1.9296	-0.1033
도매 및 소매업	-2.7574	0.0013
금융 및 보험업	-0.8356	0.0389
부동산 및 임대업	2.4788	0.0499
운송 및 통신업	6.0977	-2.1430
서비스업	-1.7290	0.6762

주) 단위는 %이다.

자료) 內閣府, 『県民経済計算』에 의거 작성(2005년 기준가격)

지금까지의 유형을 토대로 지역경제 협력을 구상하면 산업 간 상호작용을 유인하고 광역경제권 간의 지역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산업별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특수 요인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산업구조 요인이 높은 산업은 지역경제에 성장을 유인하는 산업집적화가 형성되어 있어 산업 간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의 유인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특수 요인이 높은 산업 간의 연계는 지역 내 생산성 변화 또는 외부요인의 자극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역특수 요인이 높은 산업은 산업구조 요인을 통해 증가한 역외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성장의 지원형 산업으로 정립된다면 양 경제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특수 요인이 플러스인 산업을 중심으로 연계한다면 산업 간 상호작용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경제성장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의 상호작용을 유인하는 방법으로는 양 경제권에서 산업구조 요인이 높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분업을 들 수 있다. 양 경제권은 산업구성 비율에서 제조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조립가공형의 자동차 생산과 석유화학 산업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분업은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긍정적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지역특수 요인이 높은 사업서비스(동남경제권)와 서비스업(규슈경제권)은 지역산업의 특수요인을 부각시켜 의료 및 관광산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기존 서비스산업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광역경제권 간 지역경제 협력은 성장산업의 집적화가 형성된 산업의 연계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가 양 경제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6. 마치며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경제권의 산업구조 분석을 통하여 지역협력의 전개방향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다. 현재,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은 지역협력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역협력을 위한 산업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시론적 분석이다. 분석은 변이할당 모형을 이용하여 각 경제권의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특수 요인을 이용하여 지역협력 강화의 방향을 조명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특화계수에 의한 광역경제권 내의 산업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별 기반산업이 다르지만, 각 경제권이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 성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동남경제권은 산업구조요인이 높게 나타났지만, 규슈경제권은 지역특수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산업 간의 연계는 산업구조 요인과 지역특수 요인의 융합을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반산업의 특수성이다. 동남경제권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경제력 기반에 더해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국가발전 목표가 작용하면서 제조업과 물류·유통산업의 집적화가 진행되었고, 규슈경제권은 중앙정부의 지방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체가 해외수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하면서 지역특수 요인과 산업구조 요인이 혼합 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이 지리적 특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중심이 되는 산업과 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규범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는 중앙정부의 지역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하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논의의 실현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다층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개하는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간 구조분석을 통한 지역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세부적 산업 간 연계효과에 대해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실제 산업 간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정량분석을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의 구분을 대분류가 아닌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나누어 교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산업 상호간의 연계에 대해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과거 협력사례를 검토하여 지역협력의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여야 극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과제는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 협력방안의 모색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강승호(2008)「동북아 주요도시의 경쟁력에 관한 비교」『동북아경제연구』제4집, 한국동북아 경제학회
권창기(2011)「광역권 발전을 위한 대안적 권역설정과 연계협력 방안: 동남권을 사례로」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권창기·정현욱(2007)「대도시 광역도시권 설정과 권역별 공간 특성비교」『국토연구』제52호, 국토연구원
김경희·이창현(2009)「초광역권으로 본 한국-일본 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통상정보연구』제11권 1호, 한국

통상정보학회
김영표(2013)「동남권 공동번영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경남발전』제129집, 경남발전연구원
김홍배·김현주(2001)「예측수단으로서의 변이할당 모형」『국토계획』제36권 1호
김홍률(2009)「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협력 방안」『일본근대학연구』제2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심송재·김동윤(2010)「요인분석에 의한 도시경쟁력 연구: 안양시의 관점에서」『수도권 연구』제7권 안양대학교 수도권 발전연구소
이재득(2010)「부산과 규슈지역의 한·일 초광역권 형성에 따른 교역구조 분석」『관세학회지』제11권 4호, 한국관세학회
임정덕·윤성민(2010)「동남권(부산권)-규슈(후쿠오카) 초광역권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방향」『지역사회연구』한국지역사회학회
우양호·홍미영(2012)「동북아시아 해양도시의 초국경 교류와 협력방향 구상: 스웨덴 해협 도시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21세기 정치학회보』제22집3호, 21세기 정치학회
황연우·강기철(2010)「동남광역경제권의 공간기능 분석에 관한 연구」『도시정책연구』제1권1호, 도시정책학회
加峯隆義(2010)「動き出した九州と韓国東南圏地域の超広域経済圏」『九州国際大学経営経済論集』第6巻 第3号, 九州国際大学
金秉基(2012)「日韓広域経済圏形成による地域の産業振興と環境保全」『Discussion Paper』No. J-33, 滋賀大学
長瀬勇人(2009)『福岡市の都市競争力：産業集積の視点』(財)福岡アジア都市研究所
Robert J. Pogerson. (1999)「Quality of Life and City Competitiveness」『Urban Studies』Vol.36, No.5-6
Storper, M. and Scott, A. (2003)「Region, Globalization, Development」Regional Studies. No.37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광역경제권 간의 산업구조 분석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경제권 간 산업구조 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 협력의 전개방향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동남경제권과 일본의 규슈경제권이 지역경제 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간 상호작용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인할 것인지에 대해 시론적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려는 것이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특화계수에 의한 광역경제권 내의 산업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광역경제권의 산업별 성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 기반산업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지역경제의 경제력에 더해 중앙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이 지리적 특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중심이 되는 산업과 사업에 대해 독자적인 규범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동남경제권과 규슈경제권의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는 중앙정부의 지역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하려는 데에 의미가 있다.

The analysis on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great-sphere economic areas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focusing on Kyushu economic zone and Southeast economic z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improving direction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great-sphere economic areas. There is a discussion 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yushu economic zone in Japan and Southeast economic zone in South Korea. This study intends to clarify how induce the interaction among industries in the two are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comes to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industries in a great-sphere economic area is organically linked by the specialization coefficient.

Secondly, there is a different in the growth factor of industries in a great-sphere economic area

Finally, the foundation industries are affected by economic structure of the local economy that has been formed historically and local economic polic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grow in the regional economy by using the geographic features, the two areas need expanded authorities that allow them to set their own regulations in their industries and businesses. Therefore, the discussion 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areas is meaningful because they try to construct their own competitiveness regardless of local economic polic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s.